

러일전쟁과 독도의 가치

박 병 섭

한국 嶺南大學校

러일전쟁과 독도의 가치

박 병 섭*

<목 차>

1. 머리말
2. 동해에서의 러일 해전
3. 망루의 건설과 통신
4. 맺음말

【국문초록】

1904년, 일본해군은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러시아 여순(旅順)함대 공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블라디보 함대가 가령 방비가 약한 홋카이도(北海道)를 위협해도 쓰가루해협(津軽海峡)을 경비하는 정도로 하고, 오타루(小樽) 등은 그들의 마음대로 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예측대로 개전하자마자 블라디보함대는 쓰가루해협 근처로 출격해 상선을 격침하였다. 이 때문에 홋카이도 마쓰마에 주민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편 강원도 원산에서는 블라디보함대에 의해 수송선 긴슈마루(金州丸) 등이 격침당하고 198명이 포로로 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일본해군은 블라디보함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해군은 러시아의 의도대로 여순에서 가미무라(上村) 제2함대를 빼고 블라디보함대 대책으로 총당하였다.

일본해군은 머지않아 블라디보함대가 남하해 대한해협, 쓰시마해협에서 일본군 보급로를 위협할 것을 예상하고, 동해에서의 적

* 일본 竹島=獨島問題研究넷 대표, half-moon@mu.j.biglobe.ne.jp

함 감시 체제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 일환으로 영일만, 울릉도,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울릉도에는 무선전신소를 두고 독도 망루와 해저전선으로 연결할 방침을 세웠다.

그즈음 여순에서는 일본 전함 2척이 기뢰에 건드려 침몰해 전력이 저하하였다. 이를 계기로 블라디보함대는 쓰시마해협에 출격해, 방심하고 있었던 일본 수송선 히타치마루(常陸丸), 이즈미마루(和泉丸) 등을 격침해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더 나아가 블라디보함대는 대담하게도 쓰가루해협을 지나서 도쿄(東京)만 앞바다까지 출격해, 각지에서 전략물자 등을 운반하는 상선을 격침하였다. 함대의 출격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200만 파운드의 전비를 노린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블라디보함대의 중형무진의 활약도 울산 앞바다에서의 해전으로 끝이 났다. 순양함 1척을 잃고 나머지 2척은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블라디보함대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러시아 발틱함대가 제2태평양함대로 재편돼 극동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일본군은 동해에 있어서 적함 감시 체제의 강화를 서둘렀다. 울릉도에는 망루 2개소가 설치되고 경상북도 죽변에 해저전선으로 연결되었다.

이 무렵 오키에 사는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로부터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임대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내무부는 리양코도가 “한국 영지로 의심 된다”고 해 반대하였다. 이에 반해 외무성 야마자 엔지로(山座圓二郎)는 오히려 “시국이야말로 그 영토편입이 긴요하다”고 나카이에게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야마자는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열강국간의 파워포리틱스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의견이 중시되어 독도는 1905년 2월에 일본영토로 편입되었다.

이 해 5월 27일에 발틱함대는 쓰시마해협을 통과하자 일본 연합함대와 격돌하였다. 결과는 일본군의 대승리였다. 다음 날 북쪽으로 도망가려던 러시아 주력 함대는 울릉도·독도 근처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해, 지휘관은 항복하였다. 독도해역은 발틱함대의 종언의 바다로 되었다. 이 해전의 결과 울릉도·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더

욱 높아지고 울릉도 동북부에 망루가 1개소, 독도에 1개소 세워졌다. 이것으로 동해에서의 적함 감시의 공백 지대는 해소되었다.

주제어: 독도 망루, 울릉도 망루, 발틱함대, 블라디보함대, 쓰시마해전

1. 머리말

1904년 2월, 일본은 선전 포고 없이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해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전쟁 와중에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일본정부에게 리양코도(독도)의 임대를 청원했는데, 이에 대해 내무성은 리양코도가 “한국 영지로 의심 된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각하하였다. 이에 반해 외무성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는 러일전쟁이란 시국이야말로 리양코도의 영토편입이 긴요하다고 나카이를 독촉해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임대 청원서”를 외무성에게 회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양자의 차이는 내무성과 외무성의 입장 차이를 여실히 말하고 있다.

일찍이 내무성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역사를 조사해 『이소타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를 편찬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조선영토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 판단을 바탕으로 내무성은 울릉도 및 독도의 지적에 관해 1877년에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를 태정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었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영토 밖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를 잘 아는 내무성이 독도에 관해 “한국 영토로 의심 된다”고 반대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시대의 국제정치를 추진할 입장에 선 외무성은 러일전쟁이란 시국이야말로 리양코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것이 적함 감시 상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해 독도의 영토편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일본에 의한 독도의 영토편입은 러일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최문형¹⁾, 김화경²⁾ 등의 논문이 있다. 이

글은 러일전쟁 중에 야마자가 리양코도에 망루를 세우는 일의 긴요함을 강조하게 된 군사적 배경을 상세히 밝혀낸다.

2. 동해에서의 러일 해전

1) 러일전쟁의 개전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만국공법에서조차 문제시되는 일본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기 위해, 서전에서 최대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필수였다. 이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전포고 전에 상대방의 군대를 갑자기 공격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런 선전포고 전의 기습공격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서 했는데, 이는 러일전쟁의 성과에 배운 것이었다.³⁾ 러일전쟁 때의 기습공격에 관해 『메이지 뉴스 사전』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2월 8일, 인천항에 일본 수송선대(수송선 3척과 제4전대)가 들어오고, 먼저 정박하고 있었던 러시아 군함 와리야크, 고레쓰에게 출항을 재촉해, 그 날 밤부터 9일 아침에 걸쳐 제4전대(우류 소토키치 瓜生外吉 사령관) 등이 이 2척을 공격해 가라앉히고 말았다. 또한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사령관 휘하의 연합함대 주력은 이미 6일에는 사세보(佐世保)를 출항해, 8일 밤에 여순(旅順)항 밖에서 러시아 함대에 대해 수뢰정 등이 공격해 전함에 손해를 주었다.

이는 2월 4일의 어전회의에서 개전을 결정해, 기정 계획을 실행한 것이다. 5일 오후에는 규슈(九州)의 병사를 중심으로 일개 여단의 선견대가 출범해 인천에 상륙하였다. (인천 해전은 이 때 일어났다.) 러시아 측에서도 위기적인 정황은 알고 있었지만, 발포를 금지하고 있었으니, 일본 측의 기습 공격으로 일러전쟁은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는 9일에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은 10일에 동양 평화를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선전 포고를 내렸다. 인천 및 여순 해전은 국제법상 문

- 1) 최문형, 「일제의 외침야욕과 울릉도·독도 점취」 『독도연구』9호, 2010, 7-37쪽.
- 2) 김화경, 「동해 해전과 독도의 전략적 가치」 『한일 강제 병합 100년 2010년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0, 3-20쪽.
- 3) 相澤淳, 「奇襲攻撃か「武力偵察」か?」 『日露戦争(二)』 軍事史学会, 2005, 68쪽.

제가 있는 행위이며, 분명히 포고 전의 기습이었다. 그러나 기성사실을 만들고, 이로 인해 쓰시마(對馬)해협, 대한해협, 황해에 거의 전면적인 제해권을 장악해 조선반도나 요동반도로의 육군 부대의 상륙을 가능케 하였다.

러시아 해군에도 육군에도 일본군의 행동은 예상외의 전개였다. 여순항 밖에서 전투가 시작했을 때 여순 거리에서는 스타르크 사령관 부인의 생일잔치가 한창이었다고 한다. 이 서전의 뒤집은 당분간 일본군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⁴⁾

일본은 2월 10일이 되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러시아는 설마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공격해 올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않고 방심하였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분노는 대단하며, 일본에 대해 “외교관계의 단절은 결코 적대 행위의 개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은 2월 11일(10일의 잘못, 필자 주)에 이르러 비로소 선전을 공포했지만 8일 이후 러시아국 군함 및 상선에 대해 아주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국제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감히 저질렀다.⁵⁾” 고 비난하였다.

2) 블라디보함대의 제1차 출격

일본은 서전의 기습공격 덕분에 조선 서해나 황해에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서전을 계획대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극동 해군은 여순함대뿐 만이 아니었다. 동해 북쪽 블라디보스크에 소위 블라디보함대가 있으며, 전함은 없었지만 순양함 4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블라디보함대야말로 일본 연안을 공포로 휩싸였다. 개전 직후인 2월 11일에 블라디보함대는 쓰가루(津軽)해협 부근에서 일본의 상선 2척을 공격하였다. 오후 10시 아키타현 사카타(秋田県酒田)를 출항해 홋카이도 오타루(北海道小樽)로 향하던 나고우라마루(奈古浦丸, 1,084톤)는 20분 후에 쓰가루해협 부근에서 블라디보함대와 조우하였다. 블라디보함대의 순양함 러시아, 그롬보이, 류리

4) 『明治ニユース事典』 第7巻, 毎日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1986, 27-28쪽.

5) 東京朝日新聞, 1904.3.3.

크, 보가쓰이리 4척은 나고우라마루를 발견하자 이를 정지시켜 선원을 대피시킨 후에 배를 격침하였다. 이 직후 블라디보함대는 똑같이 사카타에서 오타루로 향한 젠쇼마루(全勝丸, 353톤)를 포격하였다. 그러나 젠쇼마루가 기울이는 것을 보고 블라디보함대는 포격을 중지하고 회항하였다(도관1, 제1차 출격). 젠쇼마루를 격침하지 않았던 것은 블라디보함대의 출동을 일본인에게 알리기 위해 “일부러 놓쳤다⁶⁾” 고 한다. 젠쇼마루는 가까운 마쓰마에로 가까스로 도착하였다.

이런 전황을 안 마쓰마에 주민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주민은 “날이 밝을 것을 기다리지 않고 가재도구를 짐차 혹은 썰매에 싣고… 운반하는 자가 많고, 또 사람들은 각 은행 지점이 폐쇄 된다는 소문을 믿어 예금을 인출하려고 각 지점에 모여들어 혼잡하고, 심지어는 가옥을 판 사람조차 있었다든지 소란한 모습은 화재 현장보다 심하다.” 고 할 정도의 혼란이었다(時事新報2/17). 가까이 온 러시아 군함에 대해 주민은 한없이 공포에 떨린 듯하다. 14일에는 하코다테(函館), 나가사키(長崎), 쓰시마(對馬) 등 요새지대에 계엄령이 내렸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미리 예상된 것이다. 1903년 12월에 일본 해군군령부장은 함대사령장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에게 서함을 보내, 블라디보함대는 “고속을 이용해 오타루, 하코다테 근처를 위협하고 우리 함대를 분할시킬 계획을 쓸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전하였다. 이에 대해 도고 사령장관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적의 대 순양함이 우리 홋카이도를 위협하는 계획에 대해 우리는 별로 취할 계획이 없다. 다만 될 수 있는 한 빨리 요코수카(横須賀)의 함대를 쓰가루해협에 파견해 해협 경비에 충당하고, 오타루 등은 잠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포기하여도 좋다.” 고 대답하였다. 쓰가루해협 외는 당분간 포기할 방침이었다. 도고는 러시아 여순함대와의 해전을 중시하므로 블라디보함대에 대처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블라디보함대가 홋카이도에 출격하는 것은 함대의 존재를 시위해, 일본해군 함대를 분할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실제로 일본해군은 그렇게 움직였다. 도고는 가미무라 히코노조(上村彦之丞)가 지휘하는 장갑 순양함 5척을 중심으로 편성된 제2함대를 여순 봉쇄 작전에서 빼어 블라디보함대 대책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쓰시마를 근거지로 한 제2함대는 보복으로 3월 6일에 블라디보스토크를 포격하였다. 이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러시아에게 충격을 남겼다. 이를 계기로 블라디보함대는 독립된 작전부대가 아니며, 이름이 종래의 ‘태평양함대 순양 지대(枝隊)’ 에 분견(分遣)의 글이 추가돼 ‘태평양함대 순양 분견 지대’ 로 되었다. 사령관도 레이첸슈타인 대령에서 잇센 소장으로 교대하였다.

3) 블라디보함대의 제2, 3차 출격

잇센 소장은 취임한지 1개월 만에 “감투 정신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원산 기습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제3차 출격이다. 단 이 출격을 일본해군은 제2차 출격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는 일본해군이 제2차 출격을 파악 못했기 때문이다. 제2차 출격은 2월 24일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해, 강원도 원산까지의 해역을 수색했으나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끝났다. 원산은 강화도조약에 의해 일찍이 일본에 의해 개항된 항구이니 일본에게는 중요한 군항이며, 일본군의 물자나 병사 보급의 중요한 동해의 거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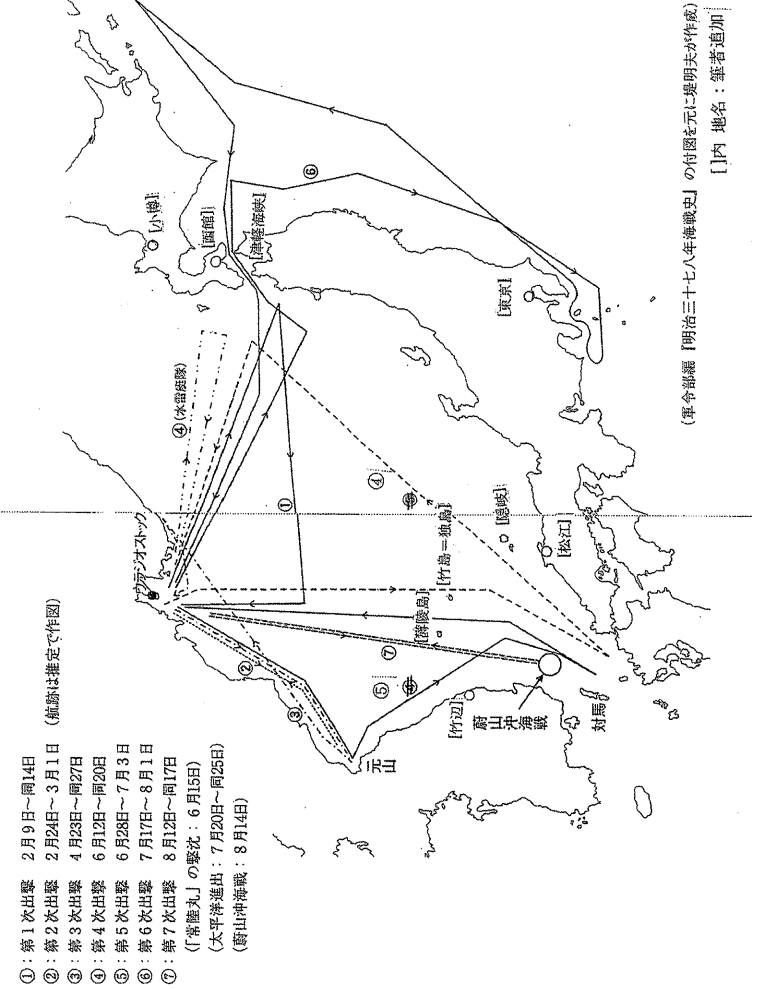
4월 24일, 제3차 출격에 나선 블라디보함대는 원산 가까이에서 가미무라 제2함대의 무선을 방수하였다. 그러나 이 날은 짙은 안개 때문에 서로 수 마일까지 접근해도 서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블라디보함대의 수뢰정 2척이 원산항에 들어가, 정박 중인 수송선 고요마루(五洋丸, 601톤)를 공격하였다. 수뢰정은 고요마루 승무원을 퇴피시켜 고요마루를 격침시켰다. 저녁에는 원산 동북쪽에서 블라디보함대는 기선 하기노우라마루(荻ノ浦丸, 219톤)를 발견해, 선원을 수용한 후 폭약으로 폭발시켰다. 밤이 되어 블라디보함대는 모진 날씨 때문에 선단에서 떨어진 수송선 긴슈마루(金州丸)를 발견하였다. 배에는 함경남도 리원에서 군

6) 海軍軍令部編,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戦史』 第1部 10卷, 80쪽.

사시위를 벌인 일본육군 제37보병연대를 비롯해 298명이 타고 있었다. 또한 배 안에는 47mm포 4문을 싣고 있었다.7) 블라디보함대는 이 중에서 시이나(椎名) 대위 등 198명을 포로로 했으나, 나머지 육군 부대는 항복을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순양함 러시아는 긴슈마루에게 어뢰를 발사하고, 또 포격도 가해 격침시켰다. 이 때 생존자는 54명, 사망자 34명, 행방불명 12명이었다.8)

이후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 포격의 보복으로 홋카이도 하코다테를 포격할 예정이었지만, 포로를 수용했기 때문에 중지하고 회항하였다. 돌아갈 때 안개 덕분에 가미무라함대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9) 가미무라함대는 보복으로 4월 29일에 블라디보스토크항에 기뢰를 설치하였다. 훗날 이에 건드려 러시아 수뢰정 제707호가 침몰하였다.

ウラジオ巡洋艦戦隊行動圖(1904年2~8月)



<도판 1> 블라디보함대의 출격 행동도10)

7) 『極秘 明治三十七八年海戦史』第1部 10卷, 119쪽.
 8) 『極秘 明治37. 8年海戦史』第1部 10, 11卷 附表 及 付図 第6号.
 9) 아가-포프, 「露日戦争におけるウラジオ巡洋艦戦隊の作戦」『日露戦争(二)』軍事史学会, 2005, 101-10쪽.

10) 아가-포프, 2005, pp.112-3. 단 제4회와 제5회 출격을 수정함.

4) 블라디보함대의 제4차 출격

1904년 5월 15일에 여순에서 일본해군은 전함 하쓰세(初瀬)와 야시마(八島)가 기뢰에 건드려 침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일본의 전함은 4척으로 줄고 전력은 크게 낮아졌다. 이를 계기로 블라디보함대는 가미무라함대가 여순으로 응원으로 갔다고 생각해 그 틈을 노리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쓰시마해협으로의 출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가미무라함대는 쓰시마의 근거지에 남았던 것이다. 그런 줄 모르고 베조블라조프 중장 휘하의 순양함 러시아, 그룹보이, 류리크 3척은 쓰시마해협을 향해 6월 12일에 출항하였다. 이가 제4차 출격(도판1)인데, 이 때 다른 1척의 순양함 보가쓰이리는 좌초 때문에 파손하고 있었으며, 장기간의 수리를 해야 할 지경에 있었다.

일본해군은 설마 전력이 불리한 블라디보함대가 쓰시마까지 공격해 온다고는 생각조차 않았던 듯하다. 그러므로 쓰시마 근처의 수송선을 호위하지 않았다. 6월 15일 아침 4시쯤 전쟁터에서 특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즈미마루(和泉丸, 3,299톤)는 후비치중령 및 선원 112명을 태우고 이키(壱岐)근처를 항행 중에 블라디보함대의 공격을 받았다. 배는 격침당해, 생존자는 불과 22명이었다.¹¹⁾

마침 이때 수송선 히타치마루(常陸丸, 6,175톤)가 강몽(関門)해협을 통과해 현해탄(玄海灘)을 항행 중이었다. 히타치마루는 근위후비연대 및 선원 등 1,238명을 태우고 있었는데, 아무도 포격 소리를 일본군의 연습으로 생각하고 개의치 않았다. 게다가 안개 때문에 블라디보함대를 인식하는 것이 늦게 되어, 결국은 격침당하고 말았다. 이 결과 생존자는 불과 147명이었다.¹²⁾ 이때에 여순요새 공략에 쓸 예정이었던 공성포(攻城砲)도 배와 같이 가라앉았다. 이 영향은 컸으며, 일본군은 9월까지 대신의 화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여순에서 일본군 보병들은 충분한 화포의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육군대장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가 이끄는 제3군은 여순 203고지 공략에서 세 번의 무리한 돌격으로 막대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¹³⁾

같은 15일에 히타치마루와 행동을 같이 한 사도마루(佐渡丸, 6,222톤)도 방심하여, 블라디보함대의 포격을 일본군의 연습이라고 착각하고 공격을 받았다. 다만 그즈음에는 초계함 쓰시마가 블라디보함대를 발견했으며, 급보를 받은 가미무라함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때문에 블라디보함대는 사도마루에게 어뢰 2발을 발사한 것만으로 공격을 중지해 회항하였다. 사도마루는 가까스로 침몰을 면했으며, 생존자는 장병 및 선원 1,258명 가운데 993명이었다.¹⁴⁾ 또한, 상실된 물건은 전체의 1할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¹⁵⁾

이 외에 우고마루(羽後丸), 후요마루(芙蓉丸)가 블라디보함대의 추적을 받았으나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또, 기나이마루(畿内丸)도 블라디보함대와 만났으나, 함대가 히타치마루와 사도마루를 공격하는 사이에 도망갔다고 한다. 그리고 히노마루(日ノ丸)는 블라디보함대를 보고 급히 퇴피하고, 그 도중에 항해 중인 가나자와마루(金沢丸)와 이부리마루(胆振丸)에게 위협을 알렸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배가 위험한 상태였다.

블라디보함대는 가미무라함대의 추격을 피하고, 16일에 일본으로 석탄을 운반하고 있었던 아랑톤(4,253톤)호를 ‘전시 금제품’의 운반을 구실로 나포, 연행하였다. 같은 날, 함대는 오키(隱岐) 앞바다에서 제9 옹코마루(運鋌丸)를 발견했으나, 포격하지 않고 이즈미마루의 포로 23명을 제9 옹코마루에 넘겼다.¹⁶⁾ 이후 함대는 17일에 독도 근처를 지나,¹⁷⁾ 18일 이른 아침에 쓰가루해협에 다가갔다. 거기에서는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고 귀항하였다.

13) アガーボフ, 2005, 105쪽.

14)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戦史』第1部 10, 11卷 附表 10, 11号.

15) 海軍勲功表彰会 『日露海戦記』1906, 214쪽.

16)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戦史』第1部 10卷, 167쪽.

17) 『軍艦新高行動日誌』9月25日条 “露国軍艦 3隻 同島(독도, 필자 주) 부근에 나타나, 한 때 표박해 서북으로 항행한 것을 보았다고 한다.”

11)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戦史』第1部 10, 11卷 附表10, 11号.

12)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戦史』第1部 10, 11卷 附表10, 11号.

이들 순양함과 별도로 해군 중령 우이노그라트스키 지휘하의 수뢰정대가 홋카이도로 출격하였다. 16일에는 범선 앙세이마루(安靜丸, 105톤) 및 야하타마루(八幡丸, 136톤)를 격침하고, 17일에는 많은 범선을 임검, 18일에는 기선 하코마루(巴港丸, 238톤)를 임검했으나 해방하고, 19일에는 범선 하쿠쓰마루(博通丸, 211톤)를 나포하였다.¹⁸⁾ 이 즈음 부터 안개가 짙게 되어, 수뢰정대는 다음날 20일 밤에 귀항하였다.

블라디보함대는 제4차 출격으로 큰 성과를 올렸으며, 게다가 가미무라함대에 발견돼도 거의 교전 없이 귀항했으니 다행이었다. 이 출격의 성과는 여순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가미무라함대에게 비난이 쇄도하였다. 그 상황을 워너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도쿄의 가미무라 맥에는 투석은커녕 칼을 던지고 할복하라고 외치는 자마저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가미무라함대의 한심스러움에) 분노한 대표자 일행이 아마모토 해군대신과 면회해 문책하는 장면도 있었다. 어느 중의원 의원이 “(해군은) 농무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농무’의 발음을 거꾸로 한 ‘무농’”이라고 빈정거린 이야기는 제2함대 장병을 분격시켰으며, 그들은 안개 속을 잡히지 않는 블라디보함대를 찾아 울었다고 전해지고 있다.¹⁹⁾

엄한 여론의 비난을 받은 해군은 이쥬잉(伊集院) 해군군령부 차장이 가미무라 장관에게 “해군 군사에 관한 능력을 못가진 자는 조난자 관련에서 혹은 오해에서 이를 비난해 신문 잡지 등에서 평론하는 일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각각 대책을 마련하고, 사건의 진상을 알리겠으니, 이에 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더욱 분기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²⁰⁾ 고 위로의 전보를 보냈을 정도이다.

그 당시는 레이더는커녕 항공기조차 없었으니 적함의 발견은 쌍

안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가미무라함대는 15일부터 열심히 블라디보함대를 찾았으나, 비나 안개 때문에 몇 번이나 놓쳤다. 가미무라 장관은 블라디보함대가 북상했다고 생각해, 울릉도 근처를 수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²¹⁾ 그러나 이 예상은 빗나갔으며, 실은 블라디보함대는 앞에 쓴 것처럼 17일에는 독도 근처에 있었다. 이는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하고 있었던 어부들이 확인했는데, 절해의 고도에 있었던 그들은 그 정보를 해군에게 전할 방도가 없었다. 이즈음 가미무라함대는 “17일에 적함은 아직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것 같아, 이를 요격하기 위해” 순양함대로 수색망을 뻗어 남하하였다. 이날 날씨가 아주 좋아 시계도 넓고 수색에 희망을 가졌으나 결국은 적함을 만나지 못하였다. 가미무라함대는 같은 날 “오후 쓰시마 동북쪽 약 100해리 지점에 왔다.”²²⁾ 고 하므로, 쓸데없는 탐색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아도 독도 같은 절해의 고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것은 군략 상 큰 의미를 가진다.

5) 블라디보함대의 제5차 출격

1904년 6월 하순, 블라디보함대에 제5차 출격 명령이 내렸다. 그 임무는 “먼저 원산을 습격하고 일본군과 교전하고, 그 후 적에게 최대한의 손해를 입혀 황해로 향한다는 것이며, 적의 해상 수송을 파괴하고, 병력에 큰 차이가 없으면 적함과 교전을 피해서는 안 된다.”²³⁾ 라는 것이었다.

6월 31일 아침에 블라디보함대의 수뢰정 8척이 원산항내에 들어갔더니, 항구는 거의 비어 있었다. 겨우 범선 세이쇼마루(清涉丸, 122톤), 기선 고운마루(幸運丸, 36톤)가 있었으므로 두 배를 태우고, 원산시가를 47mm포로 포격하였다. 한편 블라디보함대는 수뢰정 제204호가 좌초 탕으로 고장하고 항해 불능이 됐으니 폭침시킬

18)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戰史』 第1部 10卷, 167-168쪽.

19) ウォーナー・ウォーナー, 『日露戦争全史』 時事通信社, 1978, 324쪽.

20)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戰史』 第1部 10卷, 155쪽.

21)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戰史』 第1部 10卷, 151쪽.

22) 時事新報, 1904.6.25.

23) アガーボフ, 2005, 106쪽.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수뢰정은 가장순양함 레나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귀항하였다.

베조블라조프 중장이 이끄는 순양함 3척은 남하해, 울릉도로부터 발견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밤에 울릉도 부근을 통과하고 쓰시마 해협으로 향하였다. 7월 1일 오후 4시쯤 쓰시마해협에 다가갔을 때 가미무라 제2함대의 많은 함선을 발견하였다. 분명히 블라디보함대는 불리하므로 회항하였다. 그러나 구식 순양함 류리크의 속도가 늦었으니 일본군이 접근해, 드디어 양국의 함대는 교전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일몰 때문에 끝이 되고, 블라디보함대는 일본해군에서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 도중에서 일본 경부(京釜)철도회사가 고용한 영국 기선 첼팅햄호(3,741톤)를 나포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연행하였다.²⁴⁾

6) 블라디보함대의 제6차 출격

블라디보함대는 세계가 놀랄만한 제6차 출격을 감행하였다. 순양함 3척이 대담하게도 쓰가루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나가고 도쿄(東京)만 앞바다까지 출격한 것이다. 이 출격의 목적에 관해 호치(報知)신문(1904.7.31)은 “그 함선이 도쿄만 부근에 온 것은 미국으로부터 올 고레아호를 기다리는 것 같다.” 고 간단히 전하였다. 러시아가 노린 것은 ‘200만 파운드의 돈’ 을 싣고 올 배라고 한다.²⁵⁾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거액의 전비를 조달하고 있었는데, 이 돈이 일본에 들어오면 전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블라디보함대는 도쿄만 앞바다까지 출격한 듯하다.

블라디보함대는 7월 17일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해, 20일 새벽 3시 반에 쓰가루해협에 들어갔다. 해협 북쪽에는 중요 요새 하코다테가 있었지만, 블라디보함대의 행동이 너무 예상 밖이었던지, 계엄령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아무런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방심한 것은 민간 선박도 똑같다. 블라디보함대는 닥

치는 대로 선박을 임검해, 필요에 따라 격침시켰다. 함대의 행동 개요는 <표1>과 같다.

블라디보함대가 7월 25일에 향행한 치바현 노지마자기(千葉縣野島崎)는 바로 도쿄만 출입구이다. 일본의 수도권 앞바다를 블라디보함대가 일시적으로 제압하고 자유롭게 군사활동을 한 것이다. 일본은 수도를 지키기 위해 가까운 가나가와현 요코수카(神奈川県横須賀)에 해군을 두고 있었지만, 군함은 하코다테로 갔는지 거의 비어 있었던 듯하다. 하여간 수도 앞바다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표1> 블라디보함대 제6차 출격 행동²⁶⁾

日時	臨檢船舶名	国籍	排水量	処置	場所
7/20	高島丸	日	318 ton	擊沈	北海道 惠山
	사마라호	英	2,831	解放	
	共同運輸丸	日	147	解放	
	喜宝丸		140	擊沈	
7/22	第二北生丸	日	91	擊沈	
7/22	아라비아호	独	2,863	拿捕	茨城県
7/24	나이트코멘더호	英	4,306	擊沈	静岡県伊豆
	自在丸	日	199	擊沈	静岡県 御前崎
	福就丸		130	擊沈	
7/25	圖南號	英	2,269	解放	千葉県 野島崎
	데아호	独	1,613	擊沈	
	가르카스호	英	6,748	拿捕	

그러나 블라디보함대의 활동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7월 23일에는 그룸보이가 석탄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으니,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귀항해야 한다. 그런 줄 모르는 일본 해군군령부는 블라디보함대가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静岡県御前崎)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여순으로 갈 것이라고 짐작해, 24일에 가미무라 장관에게 규슈 남쪽으로 갈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에 도쿄 헤이하치로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블라디보함대가 쓰가루해협으

24)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戦史』 第1部 10卷, 195쪽.

25) ウォーナー, 『日露戦争全史』 時事通信社, 1978, 323쪽.

26)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戦史』 第1部 11卷, 47-48쪽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로 갈 것을 예상해 가미무라 장관에게 쓰가루해협으로 가라고 명하였다.²⁷⁾ 이런 상반된 두 명령을 받은 가미무라 장관은 해군군령부의 명에 따라 규슈를 돌아서 동행해, 27일에 와카야마현 시오노미사키(和歌山県潮岬) 등대 앞바다로 도착하였다.

이 즈음 블라디보함대는 이미 북쪽 그릴열도 가까이에 있었으니 해군군령부는 완전한 오산이었다. 오산은 블라디보함대에도 있었다. 러시아 측은 가미무라함대가 쓰가루해협에 향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홋카이도 북단의 소야미사키(宗谷岬)를 통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홋카이도 동쪽 구나시리 수도에 다가가자 안개에 싸였다. 다음 날 28일에는 더욱 안개가 짙게 되어 앞으로 갈 수 없었다. 석탄 부족으로 초조한 블라디보함대는 할 수 없이 위험한 쓰가루해협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개는 30일 이른 아침에 걷혔으니 블라디보함대는 역조를 무릅쓰고 오전 11시 쯤에 쓰가루해협에 들어갔다. 당연히 하코다테 요새에서 잘 보인다. 일본해군은 군함 다카오(高雄), 무사시(武蔵) 기타 수뢰정들이 출동했지만, 블라디보함대는 아예 교전하지 않았다. 이유는 해협을 나가면 가미무라함대와 교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탄환을 아낀 것이다. 그러나 가미무라함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으니, 블라디보함대는 교전할 것 없이 모항으로 돌아갔다.²⁸⁾

7) 블라디보함대의 제7차 출격

블라디보함대는 전반적으로 운수가 좋았지만, 행운은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드디어 가미무라함대와 본격적으로 교전할 때가 왔다. 8월 12일에 블라디보함대의 순양함 3척은 제7차 출격을 하였다. 목적은 여순항을 탈출할 러시아 여순함대와 쓰시마해협에서 합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여순함대는 여순항을 출항하자 곧 일본해군에게 황해에서 패배해, 대부분이 여순항에 되돌아갔으니 합류는 불가능하였다. 블라디보함대를 맞은 자는 순양

함 4척을 비롯한 가미무라함대였다. 8월 14일에 양 함대는 울산 앞바다에서 만나자 포격전을 시작하였다.

일본군은 장비가 우수한데다가 순양함이 1척 많으니 압도적으로 유리하였다. 이윽고 구식 때문에 속도가 늦고 방비가 약한 순양함 류리크는 포격을 맞아 항행불능이 되어 스스로 침몰하였다. 나머지 그룹보이와 러시아는 5시간의 격투 끝에 도망갔으나, 수리에 한 달 정도 걸리는 손상을 입었다. 전사자는 러시아 측 343명에 대해 일본 측은 42명이었다. 가미무라함대의 대승이었다.

그 후 블라디보함대의 순양함 2척은 대 수리를 마치고 쓰시마오키(對馬沖)해전 직전에도 출격해, 야에마루(八重丸), 센료마루(占領丸), 고요마루(弘陽丸), 호쿠세이마루(北征丸) 등을 격침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측에는 기록이 없어 상세한 것은 불명하다.²⁹⁾

8) 쓰시마오키 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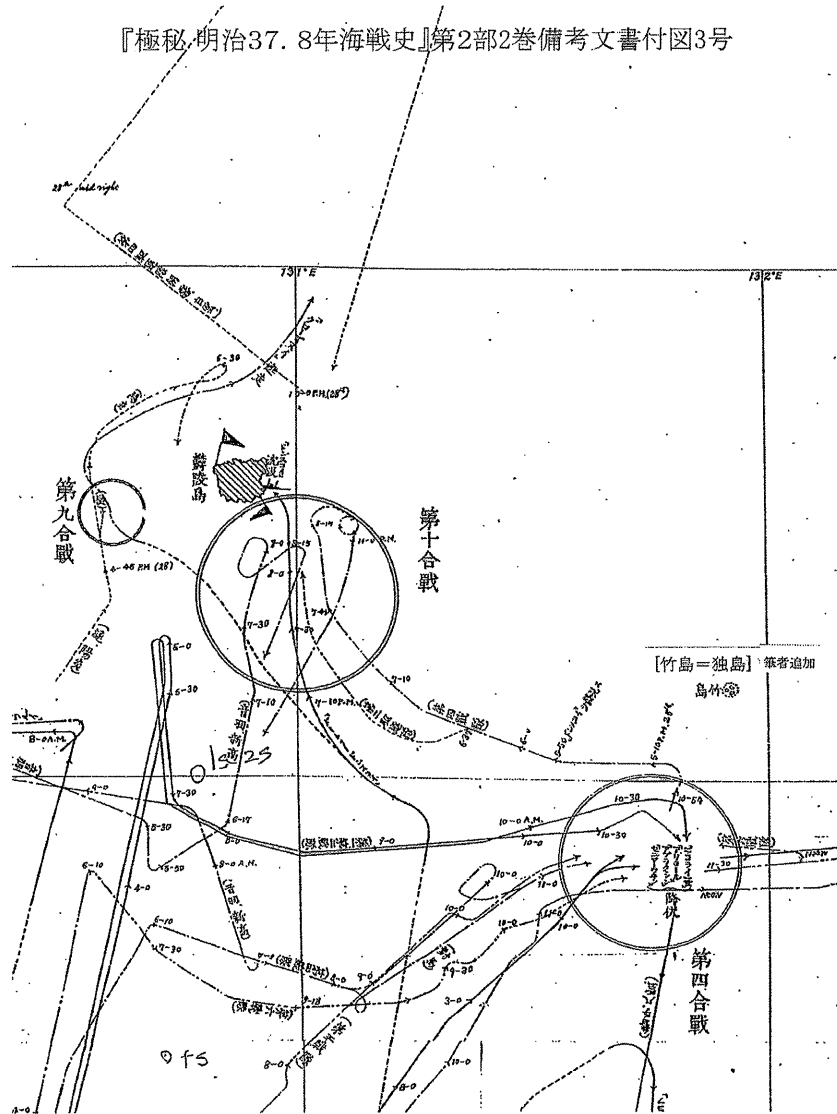
여순함대가 황해에서 일본 연합함대에 지자 러시아는 유럽의 발틱함대를 제2태평양함대로 재편해 여순항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도착은 1905년 5월로 예상되었다. 일본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연합함대는 11월 말까지 여순항의 해상봉쇄를 해제해 일본으로 돌아가서 함정의 수리 및 해전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이 기한에 쫓긴 것이 일본육군이다. 해군이 철퇴하기 전에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기어이 여순 203고지를 점령하고, 항구내의 여순함대를 포격해 전멸시킬 필요가 있었다. 육군대장 노기는 수만 명을 희생시켜 12월 5일에 겨우 203고지를 제압하였다. 이 고지로부터 항구 안에 갇힌 러시아 여순함대를 포격해 괴멸시켰다.

27)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戦史』 第1部 11卷, 22-24쪽.

28)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戦史』 第1部 11卷, 48-49쪽.

29) 堤明夫, 「アカーボフ論文への補論」, 『日露戦争(二)』, 軍事史学会, 2005, 122쪽.

『極秘 明治37. 8年海戰史』第2部2卷備考文書付図3号



<도판2> 독도, 울릉도 주변의 러일 해전³⁰⁾

30)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戰史』第2部 2卷 備考文書 第3号, 「日本海海戰行

여순항이 함락되자 발틱함대는 목적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변경하였다. 이 항로로써 일본을 우회해 홋카이도 북단 소야미사키를 통과할 수도 있었지만, 세계 최강 함대의 하나로 손꼽히는 발틱함대는 감히 적중돌파를 꾀해, 쓰시마해협을 통과하였다. 이를 기다리던 것이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가 이끄는 연합함대이다. 1905년 5월 27일에 양 함대는 일대 결전 ‘쓰시마오키 해전’을 전개하였다. 이 해전은 일본에서는 ‘일본해 해전’이라고 칭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쓰시마오키 해전’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는 일본의 역사적 대첩이었다. 격전 끝에 기함 스와로프는 파손되고, 제독 로제스트벤스키 중장은 부상하였다. 대신에 지휘는 네보가도프 소장이 맡았다.

다음 날 아침에 일본 연합함대는 울릉도 남쪽 바다에 집결해 러시아 주력 함대를 찾아서 공격하였다. 해전 장소는 <도판2>와 같이 독도 남쪽 및 울릉도 남쪽 및 서쪽 바다이다. 러시아가 여기를 퇴각로로 선택한 것은 이 해역만이 날씨가 좋아도 육상 및 어느 섬에서도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 정황은 일본 해군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미리 예상한 듯하다. 독도 남쪽에서 제4전투가 벌어지고, 러시아는 4척이 항복하고 지휘관 네보가도프 소장은 포로로 되었다. 따라서 독도 해역은 발틱함대의 종언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울릉도 근처에서 벌어진 제9전투 및 제10전투에서도 일본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부상 중인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은 울릉도 남서 40해리 바다에서 항복하였다. 또한, 파손된 도미트리돈스코이는 29일에 울릉도 동쪽에서 자침해, 승조원은 울릉도로 상륙하였다. 이 해전으로 인해 울릉도, 독도 해역의 군사적 가치가 더 한층 높히 평가되었다.

動航跡圖」拡大図.

3. 망루의 건설과 통신

1) 망루와 통신의 중요성

해전에서 중요한 것은 재빨리 적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보통 어느 나라 해군도 출격 후는 자기 함대의 위치가 알려지지 않도록 무선통신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함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육지나 섬 등에서 목격하거나, 고속 초계함으로 탐색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발견한 적함의 정보를 사령부에 전하는 방법인데, 섬에서는 무선통신 혹은 유선통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무선통신은 비용이 싸고 간단히 설치할 수 있지만, 발신한 전파가 적함에게 방수되므로, 적함을 발견한 사실이 적함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 유선통신은 그런 우려는 없지만 해저에 전신선을 부설하므로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심해에 부설할 때는 전선에 큰 장력이 부가되므로, 전선은 15줄의 강철선으로 보강해야 한다. 일본은 이 특수 전선을 영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일본해군은 블라디보함대의 제3차 출격 후 머지않아 블라디보함대가 남하해 대한해협 혹은 쓰시마해협의 보급로를 위협한다고 예상해, 1904년 5월 30일에 동해에서의 다음과 같은 적함 감시 체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① 마쓰시마에 무선전신소 1개소
본 통신소는 특히 고압 전류를 쓰고 장거리 송신에 적합할 것
- ② 영일만 冬外串 곳에 가설 망루 1개소
마쓰시마 무선 전신소가 완성되면 죽변 무선통신소(죽변 망루는 그냥 존재시킨다)를 이곳에 옮긴다.
- ③ 제1차로 마쓰시마와 리양코루도 사이
제2차로 리양코루도와 오키열도 다카사키야마(高崎山) 사이에 해저 전선을 부설
- ④ 리양코루도도에 망루 설치
단 이 망루는 건설물을 일체 노출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은폐하고 설치하며, 필요할 때만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설치함³¹⁾

31)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戰史』 第4部 4卷, 20쪽.

일본해군은 마쓰시마(울릉도)에서는 간단한 무선통신소를 생각해 도 리양코루도(독도)에는 당초부터 해저전선을 부설할 계획이었다. 그만큼 독도는 군략적 가치가 높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블라디보함대가 독도 동쪽을 지나서 대한해협 등에 출격한다면, 육지는 커녕 오키도나 울릉도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일본에는 큰 위협이 된다. 실제로 블라디보함대의 제4차 출격 때에는 독도 근처를 통과하였다. 또한, 이 항로는 블라디보함대가 도주할 때는 더욱 중요하다. 출격할 때는 제5차 출격이 그렇듯이 밤이 되어 울릉도 부근을 지나가면 울릉도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도주할 때는 밤까지 기다릴 수 없는 법이다. 실제로 블라디보함대는 제4차 때의 퇴각로로써 이 항로를 이용해, 가미무라함대는 탐색에 고생했던 것이다.

한편, 만약 일본이 비밀리에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블라디보함대의 독도 통과를 사령부에 몰래 연락할 수 있다면, 일본군은 매복 공격을 하고 상대방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은 반드시 유선통신으로 해야 된다.

어느 때는 오키노시마(沖ノ島) 망루가 블라디보함대를 발견했으나, “해저전선의 연락이 아니었으니, 블라디보함대의 남하에 대해 작전상 유감한 점이 많았다.”³²⁾ 고 한다. 이는 블라디보함대의 제5차 출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가포프는 “전대는 명령에 따라 쓰시마해협에 향했으나, 거기에는 이미 가미무라함대가 장갑순양함 4척…수뢰정 18척 등으로 구성된 함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협에 다가갈 때 전대 기함의 무선기는 전대가 발견된 것을 나타내는 일본 측의 전신을 수신하기 시작하였다…전대는 일본군으로부터 전속력으로 도주하고 있었다.”³³⁾ 고 기록하였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무선전신의 한계는 뚜렷하다.

32)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戰史』 第4部 4卷, 10쪽.

33) 『アガーボフ』, 2005, 106-7쪽.

2) 울릉도의 망루

1904년, 일본해군은 블라디보함대의 제4차 출격에 인해 쓰시마 및 홋카이도 해역에서 많은 수송선 등이 격침당한 것을 중시해, 이미 5월 30일에 결정한 두 해역에서의 감시 체제를 조금 변경해, 7월 5일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³⁴⁾

- ① 가설 망루의 설치
 - 조선해협(대한해협, 필자 주) 홍도(鴻島)
 - 절영도 동남부(부산 전신국에 연락함)
 - 울릉도 서북부 및 동남부에 각 1개소
 - 나가토국 미시마(長門國見島) 북부
- ② 해저전선의 설치
 - 다케시키(竹敷), 홍도, 송진(松眞) 사이
 - 다케시키 오키노시마, 가도시마(角島), 미시마 사이
 - 측면, 울릉도 사이(울릉도 망루는 육선(陸線)으로 서로 연락할 것)
- ③ 오키노시마 망루에서 전신 사무의 개시
- ④ 홋카이도에 있는 좌기 각 등대 소재지에 해군 감시병을 배치...

7월 8일에 야마모토 해군대신은 오우라 체신대신에게 해저전선의 부설을 조회하고, 오우라 대신은 11일에 부설을 명령하였다. 8월 8일에 해군 19정대(艇隊), 사도쿠니마루(佐渡国丸), 니타카(新高)가 울릉도에 도착하고, 섬을 일주해 후보지를 찾았다. 망루의 조건은 전망이 좋은 것은 물론, 구름이나 안개가 적은 고지로, 시설의 은폐가 가능하며, 야군 함선이 접근하고 신호 깃발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조건에 맞는 장소로서 서북부는 현포(玄圃), 동남부는 도동 남부가 뽑혔다.³⁵⁾

해저전선은 도동의 '동부망루'에 연결하기로 하였다. 해저전선 부설선 오키나와마루(沖繩丸)는 군함 니타카의 호위를 받아, 먼저 측면 부근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해저전선을 고생 끝에 찾

아, 이를 절단해 육지로 올렸다. 거기로부터 해저전선을 울릉도를 향해 오키나와마루가 부설해, 9월 24일에 울릉도 동부망루에 연결을 끝내려고 하였다. 그 무렵 블라디보함대가 3일 전에 출항했다는 연락을 받았기에 오키나와마루는 응급 연결을 마치고 쓰시마로 귀항하였다. 그런데 블라디보함대의 출항은 오보였다. 해저전선 부설선은 다시 출항해 29일에 본격적인 연결을 마치고 30일에 모든 공사를 마쳤다. 이 공사에서 호위함 '군함 니타카 전시 일지' 9월 24일조에 독도에 관한 기사가 있어 주목된다. 기사는 지난 6월 17일에 러시아 군함 3척이 표박하다가 서북쪽으로 항행했다고 기록하였다. 또, 일지에 "리양코루도 암을 한인은 獨島라고 쓴다"고 기록하였다.

다음 해 1905년 5월에 앞에 쓴 것처럼 러시아 발틱함대가 독도 해역에서 중언을 맞이했으니 독도, 울릉도의 군사적 가치가 다시 높이 평가되었다. 해군은 울릉도 도동에 세운 동부망루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새로 동북부에 망루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한 조사가 해군 중위 노자키 나오키치(野崎直吉)에 의해 8월 21일에 이루어졌다. 노자키는 전망 시야가 230도 이상 있고, 전기적인 접지를 쉽게 취할 수 있는 관음도 가까이의 정석포(亭石浦)를 후보지로 보고하였다. 이것이 마쓰시마 북부망루이며, 지금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11월 9일에 울릉도 북부망루와 시마네현 마쓰에를 잇는 해저전선이 완공되었다. 또한 이 전선은 울릉도 육상에서 연장되어, 측면과 동부망루를 잇는 해저전선에 연결되었다. 연장된 이유는 북부망루와 동부망루를 잇는 기존의 전선이 빈약한 탓이었다. 단 이 즈음에는 동부망루는 이미 폐지됐으니,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연장된 전선은 동부망루에는 연결되지 않고 동부망루를 우회해 연결되었다.³⁶⁾

3) 독도의 망루

34)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戰史』 第4部 4卷, 10-11쪽.

35)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戰史』 第4部 4卷 備考文書, 339쪽.

36) 『明治三十七八年 電線關係』 (防衛省防衛研究所所藏), 1058-1083쪽.

독도 망루의 중요성은 벌써 1904년 5월에는 인식되고 있었지만, 여러 악조건 때문에 설치가 늦었다. 현지 조사는 겨우 같은 해 11월 13일에 이루어졌다. 해군군령부는 군함 쓰시마 함장 센토 다케오(仙頭武央)에게 “리양코루도도는 전신소(무선통신이 아니다) 설치에 마땅할지의 여부를 시찰할 것³⁷⁾” 을 명하였다. 역시 독도에 해저전선을 부설하는 방침에 변함이 없었다. 군함 쓰시마는 20일에 독도를 조사해, 동도와 서도에 각각 1개소 후보지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독도의 엄한 자연조건에 대해 “요컨대 이 섬은 척박한 민둥산으로 해양의 모진 바람에 노출돼, 그 맹위를 피할만한 면적을 가지지 않으며, 불을 땔 연료가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³⁸⁾” 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이 엄한 자연 때문에 강치 사냥이 6, 7월 밖에 행하지 않음을 추가하였다.

다음 해 쓰시마오키해전의 결과 독도의 군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으니, 해군은 독도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해군 건축과 기사 미즈구치 기치고로(水口吉五郎) 등을 군함 하시다테(橋立)에 태우고 파견하였다. 미즈구치 등은 6월 13일에 독도에 도착해 상세한 조사를 했다. 그는 동도에서, 현재 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가 망루에 마땅하다고 판단해, 상세한 현장의 겨냥도를 그리고 제출하였다. 이 보고 및 하시다테 함장 후쿠이 마사요시(福井正義)의 보고를 종합해 제3함대사령관 다케토미(武富) 소장은, 서도는 높고 시야가 넓으나 구름이나 안개가 우려되어 마땅치 않다는 것, 미즈구치 기사가 선정한 동도가 적당하다는 것, 강치 사냥 어부들의 예로 보아 한 달에 한 두 번씩 양식의 보급을 하면 생활은 가능하지만 겨울에는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적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³⁹⁾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망루 건설이 시작되어, 8월 19일부터 망루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⁴⁰⁾ 그러나 독도 망루는 실제로는 오래 운영되지 않았던 듯하다. 그런 기록을 찾아

37) 『軍艦對馬戰時日誌』, 1904년 11월 13일.

38)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戰史』 4部 4卷 備考文書, 366-7쪽.

39)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戰史』 4部 4卷 備考文書, 366-7쪽.

40) 堀和生, 「1905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号, 1987, 115쪽.

볼 수가 없다.

해저전선은 신설된 마쓰시마 북부망루로부터 독도 근처를 거쳐, 당초 계획된 오키가 아니라 마쓰에로 연결되고, 11월 9일에 최종 시험에 합격되었다.⁴¹⁾ 그러나 계획과 달리, 해저전선은 독도 망루에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통신기사 가미야 사다히로(神谷貞廣)는 1905년 11월 18일자 ‘공사 복명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竹島는 그 주위가 모두 단애 절벽이며 서해안에 해저전선을 육지로 올릴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해변 및 육지는 큰 돌이 많으며, 게다가 이 섬은 대양 중의 한 고도이므로 모진 바람이 불 때 파도가 격렬함은 의심이 없는 사실이며, 이 섬에 해저전선을 육지로 올리는 것은 유지상 아주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올린 전선을 매설할 곳이 없다. 이 섬 주위를 상세히 조사했으니, 섬 서쪽 1해리에서 2해리 사이는 수심이 100심(尋) 안팎이며, 해저도 사력(砂礫)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시키면 비교적 안전하고, 훗날 필요에 따라 전선을 끌어 올릴 수 있으니, 이 계획으로 부설하게 되었다.⁴²⁾

독도망루를 해저전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일본해군의 당초의 목적이었는데 독도의 모진 자연 조건 때문에 망루로의 연결이 보류되었다. 독도 해변의 전선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므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해저전선은 필요에 따라 쉽게 망루에 연결할 수 있는 태세만 갖추었다. 그러나 아마 그럴 필요는 그 후도 없었던 것 같다.

4. 맺음말

블라디보함대는 7차례에 걸친 출격으로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많은 선박을 격침 혹은 나포하였다. 특히 피해가 컸던 곳은 쓰가루해협 근처와 쓰시마해협 근처였다. 쓰가루해협 부근에서는 제

41)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戰史』 第4部 4卷, 93-5쪽.

42) 『明治三十七八年電線關係』, 1058-1083쪽.

1차, 4차, 6차의 세 번이나 공격을 받았으나, 이들은 일본해군에게서 미리 상정된 범위이며, 일본군은 별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블라디보함대가 강문(關門)해협에 출동한 제4차 출격은 상정 외였다. 일본해군은 방심해 수송선에 호위함을 동반시키지 않았으므로, 수송선은 블라디보함대의 공격을 받아 격침당해 큰 피해를 입었다. 생존자는 이즈미마루에서는 112명 중 22명, 히타치마루에서는 1,238명 중 147명이었다. 게다가 퇴각하는 블라디보함대를 가미무라함대가 혈안이 되어 찾았으나 놓쳐, 해군은 엄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때 블라디보함대의 퇴각로는 일본해군의 상정 외로 독도 근처를 지나가는 항로였다. 이 해역은 육지나 섬 등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감시의 공백 지대였다.

그런데 일본해군은 일찍이 이 감시의 공백 해역을 잘 알고 있었으며, 전쟁 개전 3개월 후인 1904년 5월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세울 것과 통신을 방수당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해저전선으로 연결할 구상을 세우고 있었다. 울릉도 망루는 8월에 완성돼, 다음 달에는 강원도 죽변으로 해저전선으로 이어졌다. 독도 망루는 여러 사정 때문에 건설이 연기되었다. 그러나 일본 해군은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도 독도망루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카이에게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임대 청원서’를 빨리 외무성에 회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야마자의 영향력으로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토편입을 결정하였다. 1905년 1월에 일본은 리양코도에 대해 무주지 선점을 강변해, 리양코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이름 지어 영토편입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고, 다음 달에 시마네(島根)현 관할로 하였다. 이처럼 약소국을 만국공법을 구실로 삼아 빼앗는 방법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원훈인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이후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기도는 “만국공법은 약국을 빼앗는 하나의 도구⁴³⁾”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군사적인 요충지인 독도는 일

본영토로 편입되었다.

독도는 야마자 정무국장이 말하듯이 분명히 군사적 가치에 뛰어났다. 쓰시마오키해전 때에도 패배한 발틱함대 주력부대는 일본군 감시의 공백 지대인 독도 주변을 지나서 북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도 그 약점을 인식하고 미리 대비해, 오히려 그 해역에서 주력 함대를 잡아 사령관을 포로로 하였다. 따라서 독도해역은 발틱함대의 종언의 바다로 되었다. 그 후 일본해군은 이 감시의 공백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망루를 울릉도 동북쪽에 1개소, 독도에 1개소 세웠다. 그리고 해저전선을 울릉도망루로부터 독도망루를 거쳐 마쓰에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독도망루에 연결하는 것을 보류하였다. 독도의 해변은 거친 곳이니 해저전선의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 장차 필요시에 독도망루에 연결하기로 하고 해저전선은 독도 서쪽 1-2해리 떨어진 곳을 지나서 마쓰에 우체국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독도망루도 필요시에는 운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여간 독도망루를 운영했는지 어떤지는 고사하고, 일본군이 동해 감시의 공백 지대를 없애는데 독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역할이 러일전쟁 때는 일본해군에 있어서 제일의 가치였다.

43) 日本史籍協會, 『木戸孝允日記』一, 東京大学出版会, 1967.

【참고문헌】

1. 자료

- 海軍軍令部編 『極秘 明治三十七 八年海戦史』
 軍事史学会編 『日露戦争(二)』2005
 『明治ニュース事典』毎日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1986.
 外務省 『日本外交文書』第37卷
 内藤正中·朴炳涉 『竹島=独島論争』新幹社, 2007
 ウォーナー·ウォーナー 『日露戦争全史』時事通信社, 1978
 和田春樹 『日露戦争一起源と開戦』上 下, 岩波書店, 2009
 海軍勲功表彰会 『日露海戦記』, 1906
 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報光社, 1906
 島田謹二 『ロシヤ戦争前夜の秋山真之』朝日新聞社, 1990
 竹島漁獵合資会社綴 『行政官庁往復雜書類 從明治38年』所収 「事業
 經營概要」
 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2007
 『公文録』内務省之部一, 明治十年
 日本史籍協会 『木戸孝允日記』一, 東京大学出版会, 1967
 堀和生 「1905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研究会論文集』24号,
 1987
 『軍艦新高行動日誌』
 『軍艦対馬戦時日誌』
 『軍艦橋立戦時日誌』
 「時事新報」
 「東京朝日新聞」

2. 논문 및 단행본

- 최문형, 「일제의 외침야욕과 울릉도·독도 점취」『독도연구』9호,
 2010,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지식산업사, 2007
 최문형,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지식산업사, 2004

김화경, 「동해 해전과 독도의 전략적 가치」『한일 강제 병합 100
 년 2010년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2010

【Abstract】

Russo-Japan War and Dokdo Value

In 1904, Japan navy struggled to defend their army from Russia Ryusun(旅順) Fleet attack before Russo-Japan War. So, if Russia Bladivostok Fleet threat weak point of Hokkaido(北海道), Japan considered Tsugaru Strait(津軽海峡) is enough by light guard and Otaru(小樽) could be attacked. By this anticipation, Bladivostok Fleet advanced to Tsugaru Strait and destroyed Japanese commercial ship. The residents of Hokkaido Matsumae were in panic situation.

On the other hand, Bladivostok Fleet attacked Japan carrier ship Kinshumaru(金州丸) and 198 soldiers were arrested near Wonsan harbor in Ganwon-do Korea. With this serious damage, Japan navy have to ready for the attack by Bladivostok Fleet. And Japan navy deleted Kamimura(上村) the 2nd Fleet from Ryusun harbor according to Russian intention to contrast Bladivostok Fleet tactic.

Japan navy anticipated Bladivostok Fleet will go down to south and threat Korean Strait and Tsushima Strait to cut Japanese military supply in near future and strengthened guard activity for enemy ship in East Sea. To prepare new plan, Japan constructed guard post at Youngil bay, Ulleungdo, and Dokdo as well as planned to construct ocean cable line through Ulleungdo-Dokdo-Japan by constructing wireless station at Ulleungdo.

Along with the time, Japanese fleet was dismayed at Ryusun where two Japanese combat ships were sunk by contacting under water mines. In this situation, Bladivostok Fleet advanced to

Tsushima Strait and attacked Japan carrier ship Hitachimaru(常陸丸) and Izumimaru(和泉丸) to destroy and seriously damaged Japan military army. Furthermore, Bladivostok Fleet boldly passed Tsugaru Strait and advanced to the front of Tokyo(東京) bay and sank many commercial ships. The purpose of the advancement of Vladivostok Fleet was to acquire two million Pound of war expense loaded on the ship. But the attack plan was failed.

However, the active Bladivostok Fleet movement was closed by the defeat of battle at the front of Ulsan Sea. Russian damage was losing one cruiser ship and damaged two ships. But the threat of Russian Bladivostok Fleet was not finished. It was scheduled to dispatch Russian Baltic Fleet in Europe by re-arranging as 2nd Pacific to far East area. Japanese army hasted guard system to compete to enemy ship at East Sea by constructing two guard posts at Ulleungdo and connect with Jukbyeon harbor of Gyeongsangbuk-do province by ocean cable.

At this time, an application “Liancourt island annexation and rental application” was submitted by a fisherman Nakai Yozaburo(中井養三郎) who live in Oki.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of Japan first contested because “Liancourt was suspected to belong to Korean territory”. On the contrary, Mr. Yamaza Enjiro(山座圓二郎) of Japan MOFA contrary insisted “Now the time is urgently necessary to acquire the territory for the island” and directed Mr. Nakai to return the application to Japan MOFA. Yamaza alread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ilitary Value of Dokdo and power politics among great powers. Dokdo was annexed to Japan territory after the important discussion on Yamaza’s opinion.

In May 27 of 1905, Baltic Fleet confronted with Japanese Coalition Fleet to pass the Tsushima Strait and the result was absolute defeat by Russia. Next day, Russian main fleet escaping

to north was seriously defeated around Ulleungdo · Dokdo sea by Japan navy and the Baltic Fleet Admiral had to surrender. Dokdo sea area became the closing of Baltic Fleet. By this result of ocean war, the military value of Ulleungdo · Dokdo was raised and one more guard post was constructed at Ulleungdo and Dokdo. By this occasion, the confrontation on the East Sea to guard against enemy was resolute.

Key word: Dokdo guard post, Ulleungdo guard post, Baltic Fleet, Bladivostok Fleet, Battle off Tsushima

이 논문은 2011년 5월 20일에 발표하여
2011년 6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11년 6월 15일 간행함